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¹⁾ 어머니의 양육경험

모 상 근*

충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 박사과정

< 요약 >

본 연구는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질적연구방법에 의해 심층인터뷰를 촬영과 녹음으로 기록하고 전사하여 코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의미단위 340개, 하위범주 107개, 범주 9개로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범주 4개를 찾아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건청 어머니보다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가 자녀의 청각장애를 수용하는 시간이 더 짧았다. 둘째,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의 선택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어머니 중심의 양육태도에서 청각장애 자녀중심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로 전환되었다. 넷째,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청각장애 학교 기숙사를 통해 해소되는 측면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어머니의 어린 시절 양육받은 경험이 자녀 양육할 때 영향이 있다.

선택표집에 의한 연구대상자가 각 한 명뿐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렵고, 연구대상자의 양육환경과 청각장애 자녀의 성별이 달라서 두 어머니의 양육경험이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변수가 있다는 연구의 한계점이 있지만 청각장애 특성상 연구자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청각장애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우는 매우 드물어서 연구대상의 폭을 넓히고, 청각장애아 출현에 적극적인 대처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청각장애, 의사소통, 양육경험, 청각장애 자녀, 청각장애 부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각장애 출현율은 인구 1,000명당 6.43건이며, 전국의 청각장애 추정치는 약 313,600명이다. 청각장애의 형태는 청각장애와 평형장애로 나뉘는데 평형장애는 전체 청각장애의 3.7%정도로 대부분이 청각장애에 해당된다. 청각장애 발생의 주된 원인은 후천적 원인 84.2%, 선천적 원인 7.5%, 출생시 원인 1.2%, 원인불명 7.0%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청각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여타 장애와는 다르게 부모와 음성언어로 소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전제를 갖는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청각장애인 경우는 수화로 소통이 가능하지만, 자녀가 청각장애이고 부모가 건청인 경우 소통방식이 부모에 따라 결정되어 제대로 된 소통이 쉽지 않고,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오인혜·정은희, 2011). 최민숙(2002)은 자녀 중에 장애아동이 출생했다는 것을 가정의 안정된 기능을 저해시킬 수 있는 대단한 사건이며, 정신적인 부담을 주는 가정 전체의 어

*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청함교회 담임목사, 국가공인수화통역사(MBC뉴스)

1) 청각 장애인에 상대하여, 청력의 소실이 거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국어사전)

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심리적인 문제와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 때문이라고 했다.

Moores & Sweet(1990)의 청각장애 부모의 청각장애 자녀와 건청인 부모의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비교연구에 의하면, 청각장애 부모 아래서 자라는 청각장애 아동은 발달된 수화언어체계(fully development manual communication system) 안에서 성장하게 되지만 건청인 부모 아래서 자라는 청각장애 아동은 그 가족과의 대화에서 어려움(trauma or threat)을 겪게 된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ASL(american sign language)을 사용하는 그룹과 토털 커뮤니케이션(total communication)²⁾을 사용하는 그룹으로 정해놓은 한계점은 있으나, 어떤 동일한 환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청각장애인 부모 아래서 자라는 청각장애 자녀와 건청인 부모 아래서 자라는 청각장애 자녀는 서로 다른(separate)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각장애인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곽정란 외, 2011)에서는 가정 내 양육과 관련한 의사소통 문제에서 부담이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청각장애인 부모의 건청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연구(염동문 외, 2004)에서는 간단한 기본적인 대화 외에 심층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한 것이 양육부담으로 보고되었다.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장애아의 초기양육이 대부분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이주리·이종인, 2008; 정태연·노현정, 2005).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반적인 가정에서 대부분의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몫이다. 그나마 여성사회참여가 확대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양육시간이 남성에게도 요구되고 있으나 평일에는 6배 이상, 주말의 경우 2배 이상 여성의 양육시간이 많았다(이영환, 2012). 통계청 자료의 ‘20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행위자 평균시간’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육아시간이 평균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국가통계포털, 2014).

이에 본 연구자는 청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는 청각장애 출현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청각장애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서 청각장애 자녀의 양육경험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와 분석을 통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통해 청각장애아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해 심층 면담한 자료를 파악하여 근거이론방법에 따라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의사소통의 방식이 다른 두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비교하여 그 차이의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의사소통방식이 다른 두 어머니의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경험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일반적인 자녀양육 이론은 부모의 훈육방식과 양육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효율적인 양육을 위해서는 자녀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청각장애 자녀를 둔 경우 자녀에게 어떤 언어를 1차언어(모국어)로 교육할 것인지에 따라

2) 토털 커뮤니케이션(total communication) : 청각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화나 지문자는 물론 잔존 청력을 활용한 음성언어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결정은 청각장애 자녀 당사자가 아닌 부모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신속한 결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장선아 외, 2013; 최영희·조문교, 2012).

청각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건청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상화 이론에 따라 잔존청력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자녀의 청각장애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기가 가장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시기여서 ‘청각장애’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자녀를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중요한 판단과 노력이 필요한 기회이다. 1988년 이래로 인공와우 기술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수술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이한선·김병하, 2003; 광정란, 2010). 광정란(2010)에 의하면 전국 125개의 장애인 복지관과 21개의 청각장애인 학교, 178개의 언어치료실에서 조기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아동의 83%가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다. 그만큼 청각장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1. 청각장애

청각장애는 청력손실 시기에 따라 선천성 농(congenitally deaf), 후천성 농(adventitiously deaf)으로 분류하거나 언어습득시기를 기준으로 언어습득 전 농(prelingually deaf), 언어습득 후 농(postlingually deaf)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서는 10~26dB³⁾ 정상역, 27~40dB 경도, 41~55dB 중등도, 56~70dB 중등고도, 71~90dB 고도 청력손실로 분류하기도 한다(이규식 외, 2004). 청력손실의 시기와 정도는 청각장애인의 언어능력과 의사소통 방식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특히 언어습득 이전과 이후의 청각장애는 각각 전혀 다른 정체성과 언어훈련방식이 채택된다. 언어습득 이전에 청각장애가 나타날 경우 언어를 습득하는데 주력하게 되는 반면, 언어 습득기 이후에 청각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는 이미 습득한 언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훈련을 하게 된다. 청각장애는 선천적, 후천적, 사고, 질병, 원인불명 등 여러 가지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다.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청각장애 발생 시기에 대한 통계는 출생전·출생시 3.1%, 돌 이전 2.4%, 돌 이후 94.6%이며, 선천적 원인은 전체 발생원인의 7.5%정도가 된다.

2. 의사소통

청각장애 자녀의 부모중 적어도 한 명이 건청인(97%)이거나 양부모 모두가 건청인(90%)이라는 보고가 있다(Cole & Flexer, 2010; 장선아 외, 2013에서 재인용). 부모가 모두 청각장애인일 때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수화를 사용하면서 성장하게 된다. 가족이나 친척 중 건청인이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Moores & Sweet(1990)의 연구에서처럼 청각장애 자녀가 일상적인 생활을 청각장애 부모와 함께 하는 경우 제 1언어로 수화를 습득한다. 건청 아동이 음성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아”, “음”, “바”, “부” 등의 발음을 반복하는 시기를 “옹알이(Babbling)”라고 한다. Prinz & Prinz(1979), Griffith(1985)는 수화언어도 건청인이 사용하는 음성언어처럼 옹알이와 같은 현상이 별 의미없는 손동작의 반복이 관찰된 것으로 보고함으로 손으로 하는 옹알이의 존재를 시사했다(요나이야마·기무라·이찌다 외/이와이·김만영·김상화 외 편역, 2002에서 재인용).

3) dB(decibel)은 음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25~30dB은 속삭이는 정도이고, 50~65dB은 일반적인 대화, 75~85dB은 교통소음의 정도이다.

청각장애 자녀는 부모의 청각장애 유무에 따라 또는 수화사용 여부에 따라 제 1언어로서 수화의 능숙도와 습득시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청각장애인 부모는 자연스럽게 수화로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게 되므로 그 자녀는 제1언어가 수화로 결정되지만, 건청인 부모는 성장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자주 접할 수도 없고, 구화 숙달을 위해 수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화습득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규식 외, 2004; 이한선·김병하, 2003; 박정란, 2010).

1960년대 미국에서는 청각장애 자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이중문화와 이중언어(Bicultural and Bilingual: 2Bi) 접근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방법은 수화를 언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문화와 언어를 인정한 언어교육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1980년대부터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적용하기도 했다(최성규, 1999, 2007).

3. 양육경험

청각장애 양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육죄책감·양육부담·양육스트레스 등의 주제로 연구의 방향성이 나타난다. 최근 연구들에 대해 학술지 검색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양육부담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고, 양육스트레스, 양육죄책감의 순서이나 서로 연관되어있거나 구분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편이 양육에 참여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맞벌이와 양육, 가사노동으로 힘겨워하는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양육참여가 어머니 자신에 대한 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정주영, 2013; 김나현 외, 2013).

유전성 질환 아동의 어머니의 경우, 유전이라는 질병의 특성 때문에 죄책감과 책임감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옥 외(2008)에 의하면 혈우병의 경우 모계유전이라는 뚜렷한 이유 때문에 양육스트레스, 죄책감 부분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양육태도와 부모역할 만족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귀한 질병이 유전적 요인으로 자녀에게 나타났을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은경 외, 2008). 그리고 자녀에게서 장애가 나타났을 때, 발달장애아의 경우 어머니의 장애수용태도 유형에 따라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어머니의 장애 자녀에 대한 반응과 수용에 따라 어머니의 삶의 질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기룡·김삼섭, 2012).

자녀를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부모의 경우, 다른 가정의 부모와 함께 하는 아이를 보기만 해도, 떨어져 있을 때 전화 통화를 해도, 자녀의 자모행사에 가지 못했을 때, 자녀를 돌봐주시는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어 온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자녀와 떨어져 있는 시간들로 인해 직장 생활하는 어머니들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아이에게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들이 성장하면 어머니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결과도 나타났다(박주영·조복희, 2000; 김나현 외, 2013).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통해 장애아동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지원은 빈곤이나 발달장애와 같은 특정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들의 심리적 건강,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아동의 건강 및 복지까지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문영경, 2012).

자녀의 청각장애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의사소통, 상호관계 등이었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청력손실 정도가 가정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 양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K. P. Meadow-Orlans, 1990; 김병하·강창욱, 1992, 재인용).

자녀의 출생 이후 별다른 장애를 보이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청각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 가족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런 청각장애에 따른 문제들의 책임을 가장 크게 느끼는 당사자는 바로 부모이다(김병하·강창욱, 1992).

청각장애는 일반적인 신체장애와 다르게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듣지 못하는 어려움에서 정보전달의 차이가 나타난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노라 엘렌 그로스(2003)처럼 사회학, 민족지학으로 접근하여 수화를 제 2외국어로 인지하고 다문화가족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연계하여 보면 청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지명·이상균(2013)은 다문화가족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주양육자로서 부담감과 함께 사회로의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이 더해져 심한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아동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인역할 모델은 아동의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양육경험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은 어머니 본인의 어린 시절의 양육받은 경험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주장했던 Bowlby(1982)는 어린시절 부모와의 경험이 성인이 된 후 자녀를 양육할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Grossman, Pollack & Golding(1988)에 의하면 성장과정에서 부모자녀 관계가 안정되었던 경우, 그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 후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주리·이종인, 2008에서 재인용).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 임선아(2014)는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학교적응력을 통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아들러(Alfred W. Adler)에 의해서 발달된 민주적 자녀양육이론은 ‘평등’이라는 코드에 시선을 두고 있다. 가족 내의 사회화 과정을 중요시 한 부분과 서로를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두는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자칫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장애자녀에게도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바라는 일이다. 아들러는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중요시했으며,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달리 인간이 능동적이고 의식적으로 성장해 간다고 주장했다. 아들러의 평등에 기초한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은 그의 제자였던 드라이커스(Dreikurs)가 개인심리학 이론을 구체화 시키고 체계를 갖추었는데, 부모교육에 적용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동등한 상태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자녀양육을 강조했다(Fine, 1980; 정갑순, 2006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청각장애의 발생시기와 정도, 의사소통방식의 선택, 부모의 양육태도 등 많은 변수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각장애와 관련한 몇 차례의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질문지 중심의 양적연구였고, 질적연구의 경우도 의사소통의 한계 때문에 청각장애 자녀를 둔 건청인 부모 또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인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청각장애 부모와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직접적인 심층면접에 의한 연구가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수화로 직접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양육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건청인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를 통해 초기대처와 의사소통, 양육방식의 선택을 두고 고민하는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청각장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미력하나마 구체적인 참고자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론(qualitative methodology)에 의해 연구자와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는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와의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에 거주하는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경기도 ○○에 거주하는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건청인 어머니로 사전에 협조를 구해 연구에 응하기로 했는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면담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약속한 장소에서 대상자와 동의하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면담자료를 연구목적용 위해서만 사용할 것임을 사전에 설명했다.

(2) 연구 참여자와 자녀의 일반적인 특성

① 건청인 어머니(연구 참여자)

연구에 참여한 건청인 어머니는 어린 시절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 슬하에 성장했다. 3남매 중에 장녀로 시골에서 성장하다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도심지로 유학했을 정도였다. 연구 참여자의 어머니는 육성 회장을 도맡아 하였고, 일을 하시다가도 학교에 회의가 있으면 부리나케 뛰어와 활동을 하시는 등 자녀들의 학업에 영향이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공부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남편의 사업실패와 외도로 인한 이혼으로 참여자의 명의로 설립된 회사의 모든 책임을 떠안아 재산의 대부분을 채무를 변제 하는데 사용하고 남아있는 빚을 해결할 수 없어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이다. 남편과 이혼절차를 진행한 후 청각장애 두 자녀를 혼자서 키우느라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다. 부모가 모두 건청인임에도 선천성 청각장애가 두 자녀에게 모두 나타나는 희귀한 경우이다. 특별히 청각장애 자녀를 둔 가정에서 보기 드물게 건청인 어머니가 수화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는 중이다.

건청인 어머니		청각장애자녀		
연령	40대 초반	연령	15	13
학력	대졸	성별	남자	남자
직업	공기업 차장	장애	청각장애 1급(언어중복)	청각장애 1급(언어중복)
가족	자녀(남2)	학력	중1	초6
경제적 상황	이혼 후 혼자양육, 전 남편 사업부도로 개인회생절차	비고	보청기 사용안함	보청기 사용안함

<표 1> 연구 참여자 건청인 어머니와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

② 청각장애인 어머니(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중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4남매 중에 둘째 딸로 형제 중에는 본인만 청각장애인이다. 선천적 청각장애인으로 알고 있지만 유전여부는 확실치 않다. 남편 역시 청각장애인이고 남편의 동생이 청각장애인

것으로 미루어 유전적 요인을 의심해볼 수 있는 사례이다. 건축 일을 하던 남편이 가스폭발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현재 SH 공사전세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라는 사실을 언니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친정어머니가 딸이 청각장애라는 사실로 많이 힘들어 하셨다는 사실에 적잖은 충격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친정어머니와 의사소통의 부재로 어머니로부터 양육경험을 전수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농아인 어머니		청각장애자녀		
연령	40대 중반	연령	16	14
학력	농학교 졸업	성별	여자	남자
직업	주부	장애	청각장애 2급	청각장애 2급
가족	자녀(여1,남1)	학력	중2	초6
경제적 상황	청각장애남편 건축일, 기초생활수급	비고	보청기 사용함	보청기 사용안함

<표 2> 연구 참여자 농아인 어머니와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

2.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14년 5월 4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면접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1~2주 전에 했었고, 면담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건청인 어머니는 심층면접 당시 핸드폰 녹음기능으로 녹음했고,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는 캠코더로 수화상담내용을 촬영했다.

심층면담을 통해 만들어진 파일을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했고, 본연구자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연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Strauss & Corbin(1990)의 방식을 따랐다. 자료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반복적인 청취와 읽기를 통해 의미단위로 개방코딩(open coding)을 시작했으며, 지속적인 비교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를 통해 하위범주로 묶어내고, 장시간의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이면적인 의미들을 범주로 묶어내는 축코딩을 진행했다. 또한 범주들의 상위단계를 핵심범주로 묶어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 연구의 신뢰성 및 엄격성

질적 연구방법에서 연구의 신뢰성과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①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 ② 다원화, ③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 ④ 연구대상을 통한 재확인, ⑤ 자료 남기기 등의 방법(패짓, 2001)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적용했다.

본 연구자는 장기간에 걸친 관계형성(Rapport)이 되어 있는 연구대상자를 찾아 선택표집했다. 그리고 질적연구는 연구자가 도구이므로 연구자의 편견이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여 질적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했고,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괄호치기를 시도하였다. 첫 번째 참여자 건청인 어머니의 경우 1시간 11분여 분량의 녹음파일을 전사한 결과 29페이지 분량의 전사가 이루어졌다. 전사된 파일이 오류가 없는지 제 3자를 통해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 두 번째 참여자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는 55분 분량의 캡코더 화면을 3명의 국가공인 수화통역사에게 의뢰하여 전사를 하도록 했다. 수화통역의 특성상 주관적인 단어선택으로 인한 필기통역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조사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참여자와 전화나 문자로 확인하여 내용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작성한 파일들은 중간 수정이 들어갈 때마다 날짜를 넣은 파일명으로 보관했다.

4. 윤리적 문제

심층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녹음할 것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했고,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하면서 ① 본 연구의 범위, ② 1회의 심층면담과 추가면담 및 문자와 메일 등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 ③ 익명으로 기재, ④ 연구에 관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가능, ⑤ 질문에 대답을 거부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연구대상자의 동의서명을 받았다. 전사 자료를 녹취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명과 인명 등을 ‘○○’으로 처리했으며, 필요한 경우 가명(假名)을 사용했다. 다원화(triangulation) 작업에 참여한 수화통역사들에게도 수화통역사 윤리를 들어 개인정보 비밀유지를 당부했다.

IV. 자료분석 결과와 논의

본 연구는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알아보는 것으로 심층면담한 내용을 연구목적에 따라,

첫째,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의사소통방식이 다른 두 어머니의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경험은 어떠한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의미단위 340개, 하위범주 107개, 범주 9개, 핵심범주 4개로 나타났으며, 핵심범주 ‘수난이대-어머니중심의 양육-갈등조정-자녀중심의 양육’의 순서대로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핵심범주
둘째 귀모양 동일, 둘째 장애 걱정, 엄마아빠 유전자검사 결과 본인자 추측(열성인자), 병원을 찾아 차선택 강구, 작은 아들 장애 충격, 소리반응 확인, 둘째 진단과정, 둘째 진단과 체념, 전신마취 검사에 마음 아파, 마루타 시술 거절, 실험적 인공외관 삽입시술 제안 거절, 큰아들 눈치 채고 쇼크, 큰아들 아빠 상실감에 넋 놓고 창밖만 바라봄, 큰아들이 버거워하고 정신적 충격, 점차 납득, 아이들에게 설명이 필요한지 고민, 큰아들에게 설명시작, 아빠문제에 대해 큰아이에게 설명, 큰아이가 둘째에게 설명, 힘든시절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 아이들 ‘엄마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 다독이는 법 조인 “엄마의 신뢰감”, 공부하는 중에도 아이들 연락옴, 아빠 없는 아이들 생각에 더 악착같이 공부에 매진	유전에 대한 걱정 현실부정 우리가 현실로 검사과정 안쓰러움 엄마로서 책임감 큰아들 부모이혼에 충격 이혼의 후유증 엄마의 책임감 엄마역할 죄책감	내 탓이오: 부모의 (이혼과) 장애 유전의 죄책감	수난이대 (受難二代)
어머니 본인 선천적농아사실 충격, 언니가 말해준 선천적 농아 사실, 아기 잘못 아니지만, 남편의 가족력 남동생도 청각장애인, 결혼 전 가족력을 숨긴 남편, 남편의 남동생도 농아인 충격, 남편에게 가족력 사실 확인, 거짓말 남편에 화남, 결혼 생활 유지, 딸을 잃어버린 경험, 잃어버린 딸 경찰서 신고, 잃어버린 딸 때문에 괴로움, 걱정, 딸이 혼자 집에 찾아옴, 자신의 실수로 죄책감, 딸에 대한 애착	선천성 농아 뒤늦게 알게됨 유전에 대한 우려 큰 딸에 대한 기대와 애착		
친정엄마가 큰아들 이상증세 발견, 큰아들 난청 진단, 큰아들 친정	청각장애 의심	외 나 무 다	

<p>엄마 발견, 큰아들 전신마취 청력검사, 큰아들 2살때까지 두세번 검사, 큰아들의 장애상태, 남편과 친정엄마 병원진단, 두 아들 CT 비교-절망적인 진단, 수술해도 언어재활 불가판정, 청력개선 불가능, 큰아들 청각장애 진단에 천장무너지는 환상, 생각지 못한 충격(쇼크)에 집을 헛갈리는 증세, 달팽이관 없고 인공달팽이관 수술도 불가 청각장애1급 판정, 남편 부도와 피할 수 없는 산 승진, 아이들로 인한 이혼이 많다고 들음, 삶의 무게는 아이들은 장애, 경제적인 어려움, 남편의 무책임, 벼랑 끝에 선 느낌, 당시 최진실 자살사건보며 '나도 사는데 너는 왜', 자살충동 시기</p>	<p>절망적 현실 현실부정 장애극복 위한 진단 피할 수 없는 산 장애로 인한 악순환 결과 자살충동</p>	<p>리: 자녀의 장애와 마주선 어머니의 현실</p>	
<p>산후조리(친정)어머지 집에서 출산-딸이 건청이라 확신, 소리에 반응하는 딸 건청 확신, 딸의 언어발달 더뎠, 유치원에서 청각이상 감지, 소리반응 늦는 딸, 출산시 울지 않은 아들의 반응, 아들의 설사와 탈수증세 심각, 어머니와 소통이 안될 때 답답했고 화냈다는 오빠, 나를 왜 낳았나?, 아들의 청각장애 확인계기는 장염, 청각장애 확정 판명, 딸이 청각장애인확정에 충격과 실망, 청각장애 사실 인지충격, 첫째나 둘째나 충격 비슷</p>	<p>딸 출산 기뻐함 청각장애 의심 장애발생 걱정 소통이 안됐던 어머니 어린시절 자녀의 청각장애판정에 충격과 실망</p>		
<p>일과 육아의 조절, “큰 멧돌짜” 같은 삶의 무게, 작은 아이 뇌수막염과 두 번째 휴직, 육아 스트레스와 고립감, 육아 스트레스에 지쳐 복직,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 사업과 남편에 등한시, 언어치료와 맞벌이 직장생활에 육아를 감당, 일과 양육으로 저체중이었던 적도, 일하면서 아이들 교육과 육아를 신경쓰느라 바쁨, 아이들에 집중하느라 남편과 관계가 멀어져, 회사부도와 뒤늦게 알게된 채무관계, 2007~2008년 남편의 잠적, 회사 부도의 원인, 남편의 사업 부도와 잠적, 부도상황에 아빠는 잠적하고 집을 떠남, 개인회생기간 대출불가, 복잡하게 느끼는 개인회생 서류, 상당기간동안 경제적 부담, 빚을 떠안은 상황, ○○에서의 안좋은 기억 때문에 이사 생각, 현재는 안정(과거에 힘든 일), 계획대로 잘 안되는 상황, 개인회생은 어쩔 수 없는 선택, 개인회생으로 해결의 끝이 보인다고 생각, 도제식 교육에 비용이 부담, 남편회사에 산재사고(손가락), 남편회사 청양으로 이전확장이후 하향세, 버거운 삶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니 남편 미워짐, 아이들 기숙사와 승진, 남편사업은 부도로 해결불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부도이후 추심으로 쇼크, 집까지 찾아오는 빚독촉에 시달림, 청각장애 자녀에 지속투자하는 모습이 많지않다, 농아들 운동쪽에 투자는 조금 있지만 예산부족, 뛰어난 재능이 없으면 지속투자 어려워</p>	<p>“큰 멧돌짜”, 육아 스트레스의 답답함 삶의 무게 자신의 삶을 잃어 버린 엄마 부도의 과정과 결과 남편 원망 힘든 경제적 현실 지긋지긋한 과거 벼랑끝의 선택 경제적 어려움 남편 원망 생활고, 빚독촉으로 불안정함 지원부족의 안타까움</p>	<p>참살 없는 감옥(멧돌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p>	
<p>어머니 관절염으로 스트레스 화풀이, 관절염과 양육 스트레스, 딸의 질병치료로 병원 고생, 5살 이후 어지러움증 호소, 유치원다닐 때 큰딸과 연락 불통, 답답, 딸이 엄마와 떨어지는 일을 두려워함, 딸이 엄마를 지나치게 의존</p>	<p>스트레스로 짜증 탈출구 고민 양육스트레스(딸의 병치레) 큰딸 어머니와 밀착으로 불안해 함</p>	<p>어머니 중심의 양육</p>	
<p>초등학교입학 불가상태, 일반유치원에서도 발전 없음, 큰아들의 언어한계, 구화, 언어치료에 대한 한계, 장애자녀 공개꺼림(3~4년), 삶의 무게 적응기간 4~5년, 수화를 모르는 아빠와 아들간에 소통이 어려움, 장애아를 둔 아빠로서 성공에 대한 부담(엄마생각), 엄마입장은 불분 시원하게 표현어려워, 수화에 대한 한계와 적응, 부족한 대화는 카톡과 문자로 보충, 아빠와 아이들 소통부재 기숙사 후 더 서먹, 아이들이 수화를 하니까 더 어려움, 엄마의 마음에 흠족한 무언가를 찾고 싶어서 돌아다녔음, 정보를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 정상인의 10%정도수준의 정보력, 예능프로의 자막에 감사, 디코더 자막수신기 사용, 자막이 크게 나오는 예능프로에서 사람들의 예전을 배움, 디코더 수신기 글자를 싫어해서 드라마를 못보니까 공감대 줄어듦</p>	<p>결과에 대한 실망감 언어훈련의 매너리즘 사회적편견과 죄책감 동상이몽에 답답함 소통한계에 답답함 부자간 소통어려움 현재에 대한 답답함 아이들 낮은 정보력에 답답함</p>	<p>우물 안 개구리: 고정관념의 틀속에 갇혀버린 답답한 삶</p>	
<p>탁구하기 전에는 꿈이 없었음, 아들은 상이 거의 없음, 엄마와 관계는 좋음, 자녀들과는 핸드폰으로 소통,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용 허락, 어머니의 답답한 어린시절, 엄마아빠 똑같이 좋다는 애들, 아빠와 아들 대화 어느 정도, 아빠와 대화가 적은 딸, 엄마와 대부분 소통, 애교있는 아들</p>	<p>미래 걱정과 불안 자녀들과 연락방법 고민 가족 간 소통원활 만족</p>		
<p>아이들이 TV 낚 놓고 보면 화냄, 큰아들이 수술 얘기하면서 힘들어해, 초등학교 3년, 서울에 와서도 걱정, 미술하면서 배경음악이 필요</p>	<p>소리에 대한 갈망 끈질긴 장애극복</p>	<p>소리에 대한 한(恨):</p>	

<p>오히려 더욱 서글퍼짐, 큰아들 언어치료 4살부터 5년정도 진행, 큰 아이 교육을 위해 취학연령을 늦춰서라도, 큰아들 언어치료 기관 전전, 큰아들 언어훈련은 본인노력 중요, 큰아들 집중적인 언어치료, 아이들 유치원 및 학교 교육과정, 보험금이 바닥날 정도로 아이들에 투자, 아들들 골도보청기 1년 반 언어치료, 골도보청기 보더니 '나 이 소리 하나도 안들었어, 소리도 안들리면서 왜 훈련받았어? 청각장애에 대한 인지가 없었음, 소리도 안들었는데 날마다 끼고 다녔었지, 내이가 생성되다 말아서 잡음 뿐, 둘째의 언어훈련은 첫째만큼 못함, 언어훈련에 관계없이 둘째 취학연령 늦추지 않음, 작은 아들의 발음 부진과 막내기질</p>	<p>시도 잘못된 언어치료의 허망함 낮아진 기대감</p>	<p>뒤쳐질 불 안감에 멈출 수 없는 언어치료</p>	
<p>어머니와 소통이 안될 때 답답했고 화냈다는 오빠, 나를 왜 낳았나?, 아들이 한글부족, 스트레스 받을 까봐 격려만, 격려만 해주고 상처받지 않도록, 아들은 소리에 민감해서 불편, 보청기 사용하지 않는 아들, 아들은 언어치료 없었음, 딸의 언어치료 4살 때부터, 언어치료를 도와주시겠다는 분이 있어서 1주일에 2번, 최근 보청기 교체한 딸, 보청기 사용하는 딸, 보청기를 의존하는 딸, 상당한 비용의 보청기, 예전보다 TV 볼륨을 많이 조절, 보청기 지원금 30만원, 보청기 쓴 곳 소개받아야 감, 딸의 청력은 줄었고, 귀속형보청기에 잘 적응, 탁구가르치는 선생님과 소통위해</p>	<p>소통이 안됐던 어머니 어린시절 아들 한글 더듬에 고민 언어치료 포기 간절한 기회와 희망 소리에 대한 기대감</p>		
<p>아이들을 기숙사에 두고 승진 시험 준비 몰입 1년 8개월, 유일한 삶의 돌파구 승진, 큰아들 공부는 없고 탁구만 있다, 큰아들 탁구부의 혹독한 훈련, 큰아들 탁구부 선생님과 소통부재, 학부모와 소통없는 교육에 전학결심, 큰아들 서울과 다른 학교분위기, 또래집단이 없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환경, 선생님들 수화실력이 부족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 00학교 선생님들 수화실력에 불만, 청각장애아 와우수술이 많고, 지체장애아동과 의사소통 힘들, 남편의 외도추정, 몽골여자가 먼거리의 회사이전에도 계속 함께 있음, 거짓말한 남편, 멀어진 계기는 불꺼진 기숙사에서 나오는 일하던 남편, 갈등심화 계기, 큰아들 언어폭력문제로 학교방문, 카톡에 말싸움에 연루된 큰아들, 언어폭력에 대해 인지못하고 따라함, 학교의 기준이 강화되어서 언어폭력의 경우 부모호출, 큰아들 위해 선생님 보는 데서 더 낮은자세로, 더 심했으면 경찰서 갈뻔했다고 주의 줌. 선생님 친한친구에 대한 주의</p>	<p>비상구 찾는 노력 코치의 냉혹함 탁구코치와 갈등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 부부간 갈등 사춘기문제 긴장감 사춘기 우려감</p>	<p>힘겨루기 : 삶을 극복하는 과정의 갈등</p>	<p>갈등조정</p>
<p>딸 사춘기로 게임과 핸드폰 중독, 친구엄마 동행 불편한 딸, 딸의 고집이 힘들게 했음, 아들도 고집이, 버력하는 아들 때문에 놀람, 딸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잔소리, 친구들과 택시를 함께 타고 다님, 딸의 탁구 훈련시 어려움, 교사의 언어 폭력때문에 전학 결정, 탁구지도와 상관없는 교사의 간섭학교에 불만 건의, 딸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p>	<p>사춘기 자녀들 변화에 고민 삼삼이 커진 우려 탁구 교사와 갈등</p>		
<p>작은 아들의 발음 부진과 막내기질, 오히려 지체장애아들을 돕는 둘째아들, 둘째아들 눈치껏 도와주는 바른생활의 모습, 큰아들 쯤이기적, 동생에 잔소리 많고, 자부심 크고 다른사람배려 부족,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한 방법 찾음, 승진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림, ○○지사 발령과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탁구 교육, 큰아들의 끈기와 근성 교육 큰아들 공부보다 탁구에 집중, 큰아들의 ○○학교적응 잘 됨, 자율적인 ○○학교분위기를 좋아하는 큰아들, 서울00학교 계속 다니고 싶어함, 학교의 차이를 큰아들도 느낌, 세 학교 중에 서울00학교를 좋아함, 큰아들은 분별력 생김, 둘째는 아직, 신중하게 결정한 두 번째 전학, 사립특수학교에서는 기숙사 비용부담, 사립특수학교 할 인이나 면제 대상에서 제외, 큰아들 마술비용 120만원, ○○학교로 옮기는 이유중의 하나는 경제적부담, ○○에서는 추가부담없었음, 탁구부 운영, 탁구대회 참가할 때 교통비, 식비 부담, 00학교는 비용 저렴</p>	<p>둘째의 성품 첫째의 성품 모성애 발동 새로운 목표 학교적응 안도감 교육비 부담</p>	<p>맹모삼천지교 (孟母三遷之教) : 아이들 교육을 위한 전학</p>	<p>자녀중심의 양육</p>
<p>일반학교 입학 포기, 딸 초등학교 입학 연기로 임시등교, 딸은 혼자서 지하철로 통학, 적응기간 후에는 혼자, 아들은 누나와 함께, 딸이 엄마 배려, 눈치 도움, 등교문제 해결, 아들이 엄마 몰래 등교하는 장난, 대회 출전했던 딸의 얼굴기억하고 배려, 탁구 때문에 훈련중인 딸과 팀, 조심하라는 말 습관, 학교,기숙사 잘 적응, 탁구를 위해 3학년때 평택으로 전학, 딸의 탁구 교육을 위해 평택 청각장애인 학교 입학 결정, 전학의 이유는 딸의 탁구를 위해서, 탁구를 다시 시작하도록 딸을 격려, 딸의 선생님과 상담중에 탁구</p>	<p>딸의 언어발달 늦음과 왕따 걱정 큰딸 학교적응 걱정 홀로서기하는 아들 딸의 학교적응에 안도감 탁구에 대한 기대</p>		

를 위해 전학 논의	감	
<p>보청기 하시는 분의 수화(언어)제안, 수화도 언어나, 수화교육을 하게 된 동기, 큰아이 수화 습득 후 급격한 변화, 농아인이 된 큰아들을 본 엄마의 서운함, 큰아들 수화교육 후 긍정적 변화, 자기 세계를 찾은 큰아들, 와우 수술자 보다 탁월한 큰아들, 아이들 기숙사에 두고 마음의 짐 덜어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진, 신앙적인 지원과 위로, 신앙적 교류, 얘기하면서 가슴이 시원한 느낌, 큰아들 마술하는 분들 사이에서 예절교육, 큰아들 마술배우는 곳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선생님 연락, 큰아들 마술선생님의 남자어른 역할 느낌, 마음의 부담도 줄어서 둘째 아들 레고 교육, 둘째 아들 레고 재료비로 36만원/월 135,000원, 둘째아들도 한분야 전문가로 키우고 싶음, 둘째아들도 마술 시켜보다가 첫째보다 못해서 포기, 승진 위해 시간투자한 것에 대한 금지, 당시 어려움을 돌파하는 원동력</p>	<p>수화의 첫인상 아들변화에 낯설고 서운함 새로운 기대감 기숙사는 피난처 승진 성공 신앙의 힘 고백을 통한 남자 어른 역할 둘째아이 꿈찾기 승진으로 인한 자 신감</p>	<p>물 만난 고 기: 자녀와 어머니의 행복찾기</p>
<p>학교 기숙사, 지원금을 경비로 총당, 1등하는 학교라는 걸 처음 알게 됨, 선생님 탁구 지도비 지출, 아들은 불령에 관심을 보여 시작, 아들이 불령에 대한 관심</p>	<p>양육스트레스 큰딸 탁구부 잘 적 응, 아들 불령관심 (딸의 학습효과)</p>	
<p>큰아들의 미래(마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지금은 옛날의 멧돌 짝 떨어져나간 느낌, 마술을 통해서 치유와 변화를 경험한 큰아들, 마술배우는 곳에서 한계도 있지만 한가지라도 잘 배우면 만족, 건청인 사회에서 수화로 소통의 한계, 아이들 성씨도 법원에서 엄마 성으로 바꿈, 살아온 힘은 아이들, 기숙사에서 다시 아이들을 데려가는 건 특별한 경우,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큰아들 선생님 소개 지원 60만원, 마술선생님도 비용 할인, 성북구 천주교모임에서 월 10만원씩 6년동안 지원약속, 여러 지원으로 비용부담 줄어듦, 5학년 선생님의 도움, 많은 관심과 경제적 지원으로 큰아들 자아존중감 상승, 아이들 꿈을 키워줄 방법을 고민, 큰아들 방과후교실의 마술에서 흥미를 갖고 취미반에 등록, 취미반을 넘어서 무대 마술 제안받음, 반응을 시큰둥하게 했는데도 적극적인 선생님 적극 제안에 무대마술시작, 부모가 발견 못한 재능을 마술선생님이 발견한 것 감사, 선생님의 현명한 선택이라는 말 기억에 남아, 큰아들 에 재능이 있다며 적극적인 마술교육과 수화도 조금씩, 어머니 수화배우기 시작, 일상적인 수준의 대화를 수화로 하려고 노력, 큰아들이 의사소통 불편없음, 어렸을 때 꿈이 목사였던 큰아들도 마술을 꾸준히 하고, 목회와 마술선생님이 되면 자립이 가능할지 생각, 큰아들 스트레스 마술로 해소, 장애 인정, 마술실력으로 인정받아, 마술을 배우면서 큰아들 미술시간 그림이 밝게 바뀐 큰아들, 처음보다는 힘들지 않고, 농인사회에서 성공을 희망</p>	<p>마음의 짐을 덜어 냄 아이들에 대한 애 착(모성애) 외부적 지원으로 외부지원으로 자신 감 미래에 대한 고민 길을 찾은 안도감 청각장애 적극적 수용 미래에 대한 기대 감 큰아들 청각장애 수용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p>	<p>외나무다리 건너기: 자 녀의 행복 이 어머니 의 행복</p>
<p>선생님이 아들이 예의바르다고 칭찬, 언어훈련 외에 아이들 관심분야, 도시가스 회사에서 미술대회 입상 -상급 50만원, 어릴 때 공부도 잘해서 좋았음, 딸이 운동으로 받은 메달과 트로피, 아들 경우 밀착정도 양호, 유치원 보낼 때 딸과 아들이 전혀 다른 모습, 아들은 독립성 보임, 아들 홀로서기</p>	<p>아들 자랑스러움 딸이 자랑스러움 아들에 대한 안심</p>	

<표 3> 도출된 핵심범주,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1. 수난이대(受難二代)⁴⁾

1) 내 탓이오: 부모의 (이혼과) 장애유전의 죄책감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도 남편의 형제가 청각장애라는 사실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선천적 청각장애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출산하고 나서 건청인 아이를 낳았다고 좋아했지만 언어발달이 더디고, 아이를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등의 의심중세 후 병원에 갔을 때, 청각

4) 『수난이대(受難二代)』는 세대를 이어가며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각각 팔과 다리를 잃은 부자(父子), '만도'와 '진수'를 통해 시대의 아픔을 신체의 장애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 하근찬의 문학작품이다.

장애라는 것을 확인했다. 건청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병원에서의 설명이 유전적으로 열성인자에 의한 청각장애일 수 있다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김원옥 외(2008)·권은경 외(2008)에 의하면 유전에 의한 질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죄책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는 제가 열병 때문에 농아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상해서 언니한테 제가 마임(제스처)으로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언니에게 제가 태어날 때부터 농아였다고 답하시는 것을 보고 충격이었어요.”(2-4-11)

“3살... 유치원을 3살에 보낼 때였는데 말이 뒤처지더라고요. (딸을) 3살쯤 유치원에 보냈을 때 선생님이 “엄마, 엄마” 하는 딸의 발음을 확실히 들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 딸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거 같았어요.”(2-2-4)

“(둘째는) 그 때 큰 병원에 갔는데 그 때 농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청각장애 원인)탈수 증상이 있었는데 장염이었어요.”(2-4-7)

“그리고 이제 엄마아빠 피 뽑고 유전자 검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뭐 설명이라고는 그냥 엄마아빠가 어느 정도의 보인자였었던 거 같다. 그게 완전히 나타나지만 않았지만 그런 열성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아빠와 또 열성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엄마가 만났을 때, 그런 열성인자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어떤 선천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장...”(1-4-15)

“사실은 둘째까지 그렇다.. 그렇다 라는 사실을 전 끝끝내 부인하고 싶었어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막 힘 들어서 사실, 큰아이 그런 거보다 둘째아이 때 충격은, 글썽요.. 절반까진 아니지만. 어.. 그냥 인정하고 싶지, 인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1-7-1)

Moores(1978)는 가족에게 “청각장애 아이의 출생의 영향(The impact of a Deaf Child on a Family)은 가족 입장을 붕괴시키고 부모의 가치를 수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헌신했던 관심을 아이에게 쏟게 되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자녀가 출생할 경우, 남편은 재정적인 부담과 책임감에 직면하게 되고, 엄마는 활동의 자유가 억제되며 모성애에 대한 요구가 신체적, 감성적으로 발생한다. 한 아이의 탄생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첫째 아이의 출생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역할들을 수행하게 된다. 청각장애 아이가 출생했을 때 수치, 죄의식, 부모에 대한 비난, 제한된 의사소통의 문제가 뒤따르는데 적절한 상담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

건청인 어머니가 남편과 소원해진 이유 중에 자녀들의 청각장애로 인해 남편을 향하던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집중되면서 소통이 더욱 어려워졌다. 청각장애가 처음 발견될 때만 해도 남편은 장모와 함께 아들을 데리고 진단을 받는 등 매우 적극적이었으나 아들들이 청각장애인 학교로 진학을 하고 수화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의사소통이 더욱 힘들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여튼 정말 그때는 다른 거를 볼 틈이 없었어요. 아이들 언어치료와 그런 거에만. 그리고 또 새벽기도 다녔었고. 몹이 제가 견디지를 못했었으니까 남편하고의 관계도 그래서 더 소원해졌던 거 같아요.”(1-10-6)

“엄마로서 저는 당연히 내 아이들이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의무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내 새끼고 내 피붙이니까 저는 계속해서 데리고 지금까지 ... (중략)...”(1-12-3)

“아빠랑은 점점 안되니까. 예전에 언어로, 말로 할 때도 잘 안됐는데 수화로 아이들이 시작을 하니깐 더 안되더라고요. 음음.. 그랬던 거 같아요.”(1-11-8)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 본인이 선천성 청각장애이고 남편가계로 인한 유전이 의심되는(형제 중에 청각

장애 2명 이상) 경우임에도 출산 당시 청각장애가 아니기를 간절히 원했고, 비장애로 아이가 태어나자 너무 기뻐했다. 그 이후, 청각장애의 전조증세가 보이기 시작하자 조금씩 미심쩍어 했지만 청각장애를 확인까지의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청각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전조가 있었음에도(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었기에) 막상 병원에서 청각장애가 확인되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건청인 어머니의 경우보다 청각장애의 어려움을 몸소 알고 있기에 상실감이 컸을 것이나 또한 같은 이유로 좀 더 빨리 수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니, 병원 가서 검사해 보세요.” 라고 했지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무심코 넘겼는데 결국 (검사해봤더니) 확실히 청각장애가 맞더라고요.”(2-2-6)

“5~6개월쯤 됐는데 친정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애 소리에 둔하냐고. 문을 쾅 닫아도 애가 자다가 깨지도 않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도 돌아보지도 않고. 이름을 불러도 안돌아본다.”(1-3-16)

2) 외나무다리⁵⁾: 자녀의 장애와 마주선 어머니의 현실

청각장애, 그것도 유전성이라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두 자녀를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양육부담’, ‘양육 스트레스’, ‘양육 죄책감’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이 어렵다. 인터뷰에서 건청인 어머니는 자신의 처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청각장애로 태어난 두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을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느낌이라고 표현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 막 보이더라고요.”(1-4-1)

“그래서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런,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소리가 없다라고 하니깐. 일단 집에를 데리고 왔는데 저희 집이 4층인데 제가 저도 모르게 5층 가서, 막 남의 집 가서 열쇠로 문을 열고 있었었.. 그만큼 굉장한... 예. 쇼크였었던 거 같아요.”(1-4-2)

청각장애인 어머니도 딸이 건청인이라고 생각해서 일반유치원에 보냈는데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소리에 대한 반응이 늦다는 이유로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본인이 선천적 청각장애인이고, 남편의 가족력이 있었지만 소리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있었기에 건청인이라고 자신의 경험상 확신을 가졌다.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당시의 충격을 수화로 언급했다.

“어휴... 그 전에.. 딸이 2~3살 때쯤 보니까 건청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청각장애인인 걸 알고 충격이 컸어요. 충격이었고, 실망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2-2-7)

건청어머니와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건청인 어머니의 경우 본인이 청각장애인도 아니고, 가족력도 전혀 없었기에 첫째의 청각장애 판정은 너무나 충격이 컸다. 하지만 둘째 자녀의 경우는 큰아들과 비슷한 ‘소이증’ 증세가 작은 아들에게도 보였고,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에 분만 시 아기가

5) ‘외나무다리’는 『수난이대(受難二代)』에서 ‘만수와 진수’ 부자에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모티브이다. 외나무다리를 바라보면서 다리가 하나 뿐인 외(나무)다리의 ‘진수’가 앞에 서 있고, 그 모습을 뒤에서 팔 한 쪽이 없는 아버지, ‘만수’가 보고 있다.

울지 않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서 첫째 아이보다는 둘째 아이 때 장애에 대한 수용이 더 빨랐다.

“그리고 나서 둘째가 한 24개월, 26개월 터울로 태어났는데 귀가 소망이랑 동일하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쪽바퀴처럼...”(1-4-6)

“그래서 큰아이 CT 찍은거 띄우고, 작은아이 CT 찍은거 띄워서.. 두 눈이 똑같은 거래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자기도 이런 청각쪽 이비인후과 닥터지만 굉장히 좀 희귀한 케이스를 봤는데 이거에 대해선 어느 병원을 가도 왜 원인이 뭔지 답변이 아마 나오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미리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뭐 시간 낭비하고 이병원 저병원 다닐 필요 없다고, 왜냐면 큰아이 CT 찍은 거랑 작은아이 CT 찍은 거 좌우쪽이 똑같은니까. 더 이상의 답변을 찾기 힘들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1-4-12)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둘째 아이 출산과정에서 울지 않는 등의 특이점이 있어서 걱정을 하게 되었지만 병원에서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았고, 추후에 설사로 인한 탈수가 심하게 오는 장염을 앓게 되었을 때에야 병원에 방문했고, 그 때서야 뒤늦게 청각장애라는 것을 판정받게 되었다. 이렇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청각장애를 의사(전문가)로부터 판정받게 되기까지 의심과 걱정에 쌓여 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김병하·강창욱, 1992).

“아들은 태어날 때 뺨을 자르고 엉덩이를 찡찡 쳤는데 언니 말이 (엉덩이를) 때리면 ‘응애’하고 소리를 내야 하는데, 애가 울지를 않고 조용하다고 언니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2-4-5)

“결국 아들 키울 때 열이 심하게 나서 탈수 증세가 나고 설사를 계속 해서 병원에 계속 다녔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애가 계속 마르고 열도 있고 설사도 계속 해서 그 때 큰 병원에 갔는데 그 때 농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청각장애 원인)탈수 증상이 있었는데 장염이었어요.”(2-4-6),(2-4-7)

“(청각장애라는 것을 알고서 충격은)첫째 때나 둘째 때나 똑같았어요.”(2-4-8)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청각장애 판정을 받으면서 충격이 비슷했다고 했다. 건청인 어머니와는 다른 이유, 즉 자신이 살아온 청각장애인의 삶을 자녀들이 똑같이 겪어야 한다는 마음에 자신의 어린시절의 충격을 언급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아인이라서 답답함이 많으셨대요. 큰 오빠 말에 의하면, 의사소통이 안될 때가 많았는데, 뭘 가리켰는데 저는 못알아듣고 엉뚱한 것을 가져와서 (오빠가) 아니 그거 아니고...!!

(화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답답함이 많았어요.”(2-5-1)

“나를 낳지 말지..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 죄가 아닌데..어쩔 수 없는 것을..”(2-5-2)

2. 어머니 중심의 양육

일반적으로 가정에 청각장애 아동이 출현하게 되면 건청인 부모는 자녀가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다른 아이들은 장애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고 해도 내 아이만큼은 장애를 극복하고 TV에 나오는 ‘인간극장’의 주인공처럼 멋있게 살아내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머니들은 건청 아동과 똑같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다.

1) 창살 없는 감옥(맷돌 짝):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무게와 스트레스

건청인 어머니는 매우 특별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 마치 영화 《빠삐용》의 주인공처럼 창살은 없지만 외딴 섬에 갇혀있는 것 같은 고립감에 빠져버렸다. 남편의 회사는 하향세를 걷고, 부모 이후에는 추심으로 집에까지 찾아와 빚 독촉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건청인 어머니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명의로 운영되었던 회사의 부도를 감당해야 했다.

“회사.. 회사를 안가고 집에서 아이들 둘만 데리고 남편은 회사 갔다가 늦게 오고 이러는데, 어 순간순간 제가 미칠 거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들 데리고 막 놀고 장난하고 이러면서 사진도 많이 일부터 찍어주고 일부터 앞 에다 끌어안고 걸리고 걸어도 나가보고 했었는데, 내가 이대로 있다간 미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1-7-4)

“그래서 휴직을 사실은 1년을 났다가 4개월만에 다시 복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시어머니한테 조금만 도와달라고 둘째아이를 내가 애네들 둘을 이렇게 키우다 내가 미칠 거 같으니까 나 좀만 도와달라고 하고 회사를 다시 나왔어요.”(1-7-5)

전적으로 자녀들의 청각장애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남편과 아들들 사이에 소통이 끊어지면서 남편의 마음이 더 빨리 멀어졌고, 건청인 어머니도 장애인 가정에 이혼율이 높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건청인 어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큰 맷돌 짝” 같은 삶의 무게가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다는 표현으로 답답함을 호소했다.

“근데 사실 장애아를 장애아동을 키우는 그 가정에 열에 많게는 뭐 네, 다섯 가정 정도는 그 아이들로 인해서 갈등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1-12-1)

“솔직히 표현을 하자면 그때 제 기억에는 제 가슴에 맷돌 짝 ‘큰 맷돌 짝’ 같은 게 항상 눌러져 있었어요. 그게.. 작은아이 그걸 알고 나서 제가 복직을 하고 나서도 한 2년은 그렇게 가더라고요.”(1-7-7)

건청인 어머니의 둘째 아이는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있고, 직장에 휴직을 신청하고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회사부도로 남편은 잠적했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은행에서 대출조차도 안되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 건청인 어머니는 직장생활과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의 육아, 그리고 남편의 빈자리에 이은 빚 독촉, 개인회생절차의 부담까지 외로운 싸움을 혼자 하게 됐다. 건청인 어머니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갖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승진’이라는 방법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벼랑 끝에 있는데 제가 뛰어내리면 애들 누가 거두겠어요.”(1-13-2)

“저도 그만큼 정말 자살을 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힘든 때가 그때였어요. 2008년. 제일 힘들었어요.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1-13-4)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중이다. 벌써 몇 년 째가 되어간다. 일단 몸이 불편하면 만사가 다 귀찮은 법이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때 쯤, 등·하원 지도를 하는 동안 딸아이가 엄마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서로 연락도 되지 않았는데 유독 예민한 딸이 엄마와 밀착되어 있어 연락이 닿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유치원에서 적응하는 기간도 수개월이 걸렸다. 견디다 못한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딸을 기숙형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한다.

“딸이.. 제일보다.. 딸 때문에 힘들었어요. 아들보다.. 딸이 열병 때문에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아들은 괜찮은데 딸이 힘들었어요. 열 때문에 병원도 왔다갔다하고.. 너무 힘들었어요.”(2-6-4)

“왜냐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전에 제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그게 자꾸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혼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닌데, 돌아보면 제 잘못이죠.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아이들을 자꾸 혼내게 되더라고요.”(2-3-9)

“스트레스가 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잘 양육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전 몸이 힘들다보니 짜증만 나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여러 가지로...”(2-3-10)

2) 우물 안 개구리: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혀버린 답답한 삶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빗대어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을 사용한다. 세상의 그 어느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물론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등은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더 나은 선택을 놓치는 우(愚)를 반복할 수 있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면에서 어머니의 고정관념은 자녀의 원활한 소통과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사 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각장애 때문에 자녀들이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건청인 어머니는 걱정스런 마음을 표현했다.

“요즘은 사실 그게 좀 걱정이예요. 애들이 일반인들이 듣는 그런 정보를 너무 많이 놓치다보니까”(1-17-1)

“예. 우리가 아는 정보의 세계에 제가 볼 땐 한 10% 밖에 인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또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런 언어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어, 그렇구나 그때뿐인 거예요.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보여요. 그나마라도 주변에 건청인들이 많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정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1-17-2)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건청인들이 얻는 정보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녀와 소통에 대한 걱정을 더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들.. 공부.. 문장이랑 단어가 (실력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주시면 잘 알아듣고 이해해요. 또 센터에서 공부.. 잘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단어는 부족하고 수학은 잘한다고, 단어 가르쳐서 많이 좋아졌어요. 아들이 문장을 잘 못해서(문장력이 부족해서) 혼내면.. 애는 몰라서 그러는거니까.”(2-16-4)

청각장애인 자녀를 둔 건청인 부모님들이 한 결 같이 하시는 말씀은 ‘가정에서 청각장애인 자녀와 소통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잘 생활하고 있다’는 대답이 많다. 그러나 청각장애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다른 결과를 들을 때가 많다.

“그래서 수화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수화가 생각보다 빨리 늘지는 않네요. 예. 지도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엄마로서 좀 부끄럽긴 하지만 부족한 거는 제가 스스로 느끼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 하고는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거 같지는 않아요.”(1-10-2)

“그때 2008년도 말쯤에. 2007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그랬던 거 같아요. 아빠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에

너무 막 몰입을 하기도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애들은 커가는데 애들이 언어가 안되니까 의사소통이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노력도 안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급격하게 더 멀어졌죠. 애들은 수화를 하나까.”(1-11-7)

건청인 부모는 대부분의 경우, 한글을 좀 더 배우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등 청각장애인 자녀가 건청인답게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기대가 있다(이한선·김병하, 2003; 곽정란, 2010). 어쩌면 청각장애인 자녀를 둔 모든 건청인 어머니들의 바람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국어를 습득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국어보다 먼저 영어나 외국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다. 청각장애 자녀를 둔 건청인 부모님들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수화는 보조수단이고, 입모양이나 말을 하는 것이 주요 의사소통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수화를 배우면 음성언어(구화)훈련이나 언어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각장애 자녀들이 힘들어 하는 것과 상관없이 언어치료에 집중하고, 무리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구화를 가르치려고 한다. 건청인 어머니는 3~4년이 지나도록 주변사람들이나 낯선 사람들에게 자녀들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조차 꺼렸다. 건청인 어머니는 삶의 무게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데 4~5년이 걸렸다고 했다.

“제가 아이들을.. 큰아이 9살 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8살을 일반유치원을, 일반 어린이집을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보낸 거 차체의 의미는 보통 아이들 하고 좀 섞이기라도 하면 뭔가 좀 배울 줄 알았는데. 많은 발전은 없더라고요.”(1-5-7)

“그리고 또 구화, 언어치료에 대한 한계도 제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고. 그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거만큼 자기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니까 글도 잘 익히지도 못하겠고. 제가 가르쳐도 잘 못하겠고. 이걸 아는데아닌데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던 거 같아요.”(1-5-10)

반면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본인이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왔기에 청각장애인이 당해야 만하는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다. 청각장애인 부부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건청이나 청각장애나에 관계없이 수화를 모국어로 받아들이게 된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다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친정어머니로부터 자녀양육과 관련한 소통이 없었기에 양육경험에서 선택의 폭이 좁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소리에 대한 한(恨)

사람은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한다. 거꾸로 말하면 듣는 만큼 말 할 수 있다. 큰아들은 청각장애로 언어치료를 계속했지만 일반초등학교 입학 불가상태였고 결국 초등학교 입학 시기도 늦춰가며 일반유치원과 언어치료기관을 전전했지만 괄목할만한 변화는 없었다.

“언어치료는.. 소망이가 만4살 때부터 서울에 있는 ○○○ 선생님이 운영하셨던, 교대역 근처에서 ○○○ 선생님이 하셨던 무슨.. ○○○인가 비슷한 게 있었어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 선생님한테 다니기 시작하다가. 만4살부터 다니긴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꾸준히 했죠.”(1-3-10)

“학교를 소망이는 (초등학교를) 9살에 갔는데 한 5년은 했어요.”(1-3-11)

“그니까 언어치료 기관도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했죠.”(1-3-12)

“근데 전 사실 그래요. 아이가 그때 제가 언어치료를 4살, 5살부터 업고 서울로 왔다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두 번은 꼭 갔었고요. 거의 언어치료는 일주일에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세 번까지. 정말 여러 군데를 다녔던 거 같아요. 여기 끝나면, 또 좋다는데 있으면 또 연결해서 가보고. 예. 언어치료는 그렇게 해서 한 6~7기관을 계속 끊지 않고 다녔던 거 같아요.”(1-6-3)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큰 아이에게 쏟았지만 큰 진전이 없는 둘째에게는 많은 정성을 쏟지 못했다.

“그렇죠. 사랑이는 형아 보다 2살이 어리니까.. 시작은 6살부터 사랑이는 5~6살부터 한 거 같아요. 근데 사랑이는 둘째다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큰아이에게 쏟았던 만큼의 그런 것들을 사랑이에게는 못 쏟겠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고 또 둘째니까 또 예쁘다고 그냥..”(1-3-14)

아이들이 소리가 나지 않게 TV를 켜놓고 보고 있으면 화를 내곤 했다. 자막도 입모양도 보이지 않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이다.

“그냥 일반 큰 티비에서 주로 보는 진짜사나이, 런닝맨, 위기탈출넘버원, 동물농장 아이들 그런거 볼때는 글자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그걸 파악을 하고. 또 제가 같이 볼 때 중요한 거는 수화로 조금씩 설명을 해주면 아~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선 어느 정도 사람 사이의 유대관계를 배우는 거 같아요.”(1-17-4)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뭐가 하고 있을 때. 그냥 티비 보고 집에서 뉘 놓고 있는 거. 특히나 어떤 때 제일 화가 났냐면. 그 자막도 없는 그림만 나오는 만화 있죠. 짱구 같은 것도 그렇고. 아이들 좋아하는 만화 있어요. 저기.. 누구죠? 네. 그런 거 볼때도 자막도 없고 그림.. 글도 없는데 그것만 보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땐 티비를 확 꺼버리기도 했어요. 너 그림도 없고, 자막도 없는데 이거 왜 보냐고. 엄마 답답하다고. 보지 말라고. 이런 거. 가끔 화를 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1-18-9)

초등학교 3학년 때 큰아들이 “엄마 나 왜 엄마는 소리 듣는데 나 왜 소리 못 듣는지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내가 수술을 했어야 됐을까? 이제라도 수술을 할까?”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할 때 건청인 어머니는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쳤다. 큰아들이 마술을 배우면서 배경음악과 맞추는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답답한 마음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얘기를 몇 번 했었다는 것이다.

“가끔 힘들었던 건 소망이가 사랑이 들어오고 서너번 엄마 나 왜 엄마는 소리 듣는데 나 왜 소리 못듣는지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내가 수술을 했어야 됐을까 이제라도 수술을 할까 그거를 가끔 의미심장하게 저한테 던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1-19-2)

“예.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마술이라는 걸 하면서 음악의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너무 답답하니까 마술을 하고 나서도 진지하게 한.. 두 번은 그 얘기를 했으니까 대어섯번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1-19-4)

또 언어치료에 좋다는 방법들은 모두 동원해봤기에 뼈의 진동으로 외이도를 통하지 않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골도 보청기를 1년 반 정도 훈련했다. 어느 날 골도보청기 사진을 보더니 큰아들이 “어마 아 이소리 하나도 안들렸어”라고 했다. 건청인 어머니는 “소리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골도라는 느낌도 단순히 어떤 진동 같은 그런 치척치직 그런 느낌이었겠죠”라고 말했다. 소리가 뭔지도 모르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런데 자신이 배우고 있는 마술을 좀 더 잘하려면 음악이 필요한 아들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본인이 선천성 청각장애여서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어린 시절 기억을 이렇게 떠올렸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아인이라서 답답함이 많으셨대요. 큰 오빠 말에 의하면,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았는데, 뭘 가리켰는데 저는 못알아듣고 엉뚱한 것을 가져와서 (오빠가) “아니 그거 아니고!!!!”(화났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답답함이 많았어요.“(2-5-1)

“나를 낳지 말지..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 죄가 아닌데..어쩔 수 없는 것을..”(2-5-2)

본인이 청각장애인이기에 수화를 언어로 소통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폭넓은 사회적응을 위해서 청력이 남아 있는 한 언어훈련을 지속하는 것이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 경험을 비교하면 소통문제는 어떤지) 비교하면 부모와 딸이 의사소통이 잘 되고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랑 비교하면 너무 힘들고 답답함이 많았어요.“(2-4-10)

(어.. 어.. 그러면 아들이랑 아빠랑.. 사이에서 대화는 좀 많이 있어요?)있어요, 대화할 때.. 아빠 보면 아들이 “아빠” 불러서 대화하자고 하면 아빠가(남편이) 알았다고 하고 대화해요.“(2-15-3)

“딸에게 다른 말을 가르쳐보려고..전에..애가 태어나서 4살? 5살 땀가부터 00기관에 언어치료를 데리고 다녀어요. 1주일에 2번 정도씩? 언어치료를 데리고 다녀요. 계속.. 4살 부터요 4살 3년, 4년 정도? 네, 딸이 훈련...“(2-7-4)

“또.. 안산에서 제 딸 언어치료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인천 농아학교 선생님이 언어치료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딸한테 하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예” 하길래 “걱정하지 마, 연락해볼게” 했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학교 선생님이랑 연락해서 다른데 언어치료 해주는데서 1주일에 2번 딸이 언어치료 계속 혼자 다니고 있었어요. 탁구 연습..(아.. 음.. 그렇게 도와주시는구나..)(2-11-2)

그럼에도 둘째 구슬이의 경우에는 언어훈련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 물론 본인이 보청기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 이유도 있었다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어쩔 수 없다.

“구슬은 보청기 쓰지 않아요? 구슬은 보청기를 자꾸 빼버리더라고요.“(2-6-7)

“아들은 적응을 못하고 자꾸 빼버리더라고요. 네.. “왜.. 보청기 해봐..”그러면 “시끄럽고 머리가 어지러워.”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면서 빼버리더라고요. 빼면 “시원하다”고 해요. (보청기는)불편하고 싫대요.“(2-6-9)

“(아들은요?) 아들은 없었어요. 네..(본인이 보청기를 싫어해서 더 빨리 떨어진건가요?) 맞아요.“(2-7-5)

3. 갈등조정

1) 힘겨루기: 삶을 극복하는 과정의 갈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다양성의 증거이다. 하지만 다른 생각들이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면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건청인 어머니와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갈등은 어떤 것일까?

먼저 건청인 어머니의 힘겨루기는 남편, 자녀들의 사춘기,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 탁구코치, 생활고를 해결해줄 승진문제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분만 다루기로 한다. 건청인 어머니의 경우 청각장애 자녀를 청각장애인 학교에 보내고 나서는 수화에 대한 의사소통 방식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기대치를 높이고 소통하기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또한 자녀들과의 소통문제에서도 선생님의 수화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에서 건청인 어머니의 수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근데 되게 사랑 많으신 선생님도 많고 거기서도 나름 장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선생님과도 갈등이 마음을 달게 만들더라고요. 부모의 갈등. 학부모와 잘 의사소통이 안됐어요.”(1-8-12)

“그 선생님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듯이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학부모도 이렇게 무시를 하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무시를 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자꾸 들면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1-8-13)

“근데 서울△△.. 아니 서울△△ 선생님은 사립이니까 어느 정도 수화가 됐는데 서울○○학교는 국립 선생님들은 자꾸 로테이션이 되더라고요. 예. 확실히 수화가.. 수화 실력은 몇몇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잘.. 못하시더라고요.”(1-15-10)

건청인 어머니의 큰아들이 사춘기에 서서히 접어들면서 문제가 터졌다. 단체 카톡 중 욕설 문제로 학교에 불려가면서도 가정 내에서 남자 어른 역할의 부재에 대한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다.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게 있기도 하고 또 지금은 보니까 어느 정도 중학생이니까 남자아이들의 특성이 나타나서 좀 폭력적인게 있어요. 언어적인 것... 네. 형제 사이에도 있고. 자기들 또래 모임에서. 사실 지난 주에 저 학교 불려갔다 왔거든요.”(1-16-4)

“카톡으로 뭐 성공이라는 친구가 중3 형아가, 중3형아끼리 목요일날 싸웠대요. 그 목요일날 오후에 성공이 형아가 소망이까지 단체카톡방에 불러들여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정작 중3, 중3끼리 싸웠는데 얘가 싸운 그 다른 형하고 말싸움이 된 거예요. 단체카톡에서. 근데 그게 카톡에 남잖아요. 그걸 캡처해가지고 이 상대방에게 여러 명에게서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가 같이 들어있는데 보니까 소망이가 욕한 부분만 있는데, 뭐.. 사비새끼야. 그런 욕을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1-16-5)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딸의 사춘기 문제에 봉착했다. 게임과 핸드폰 중독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딸, 이전에도 고집을 부리면 딸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 용돈 씹씹이도 커져서 걱정인데 딸의 입장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니까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딸이 사춘기인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밤 늦도록 게임하고 친구랑 연락하고.. 짜증이 나서 혼도 내보고 화가 나니까..화가 아주 많이 나요. 에휴.. 딸이 축 처져 있어서 혼내기도 뭐하지만 혼낼 때가 있는데 답답하죠. “엄마 몸이 아픈거 보고도 몰라?” 딸도 알아요. “미안해, 엄마” 하더라고요.”(2-5-4)

“그것보다도 딸이 쓰는 거.. 할 수 없어요.. 부모가 탁구부 회원 돈도 내고 선생님 수고비도 내고 또 학교 선생님 수고하니까 무슨 행사 때 내는 돈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많이 써요(돈이 많이 들어요) 딸한테 “필요한거 만.. 왜 (돈을 자꾸) 써? 쓰지마!” 잔소리를 했는데..”(2-16-2)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한글을 아직 깨우치지 못한 아들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도 아들과 살갑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간혹 아들에게 장난을 걸다가 오히려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해서 놀랄 때도 있다. 가족 간에 화를 낼 일이 아닌데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에 뒤라야

단하지도 못한다.

“아니다 아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 아들을 혼내면 (아들이) 화를 내고 버럭해서 깜짝 놀라요. 아들이요 아들이 딴짓하고 있을 때 제가 뒤에서 치면 깜짝 놀라서 화를 내면서 “깜짝 놀랐잖아! 왜 뭐!” 화를 내서 저도 마음 상하고.”(2-10-1)

탁구지도와 상관없는 교사의 간섭에 학교에 건의를 했지만 딸은 여전히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결국 마음의 상처가 심해서 탁구를 그만두는 쪽으로 결정했다.

“또 ○○학교 2학년 때 다시 전학을 갔는데, ○○으로 도로.. 다시 옮겼어요. 딸이 원해서.. 탁구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게 좋고 전념하고 싶은데, 다른 전공 선생님이 마음대로 지도하시면서 혼을 내고 야단하셨나봐요. 혼낼 때 심한 말 쓰을 한다고 얘기 하더라고요.”(2-4-2)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은 고집이 세다는 선입견이 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청각장애인은 고집이 센 것이 아니라 정보가 풍부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시행착오를 하고 나서야 생각을 바꾼다. 미리 정보를 풍성하고 다양하게 줄 수만 있다면 고집이 세다는 생각은 사라질 수도 있다. 자녀양육과 관련한 갈등상황이 진행됐을 때 또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탁구를 배우다가 코치와의 갈등이 시작되자 탁구를 포기하게 하는 수순을 밟았다. 갈등상황에서의 해결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뒤늦게 다른 학교에서도 탁구를 계속 배우며 선수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적응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버렸다.

4. 자녀중심의 양육

1)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 아이들 교육을 위한 전학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실상 자녀교육을 위해서 전학이나 이사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건청인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 첫 번째로 학교를 옮겼었고, 학업은 뒷전이고 운동만 철저히 가르치는 비인격적인 탁구교사와의 갈등 속에서 자녀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 학교를 찾아 두 번째로 학교를 옮겼다. 현재 두 아이들은 모두 만족하는 상태이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이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선생님과 자신의 꿈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선생님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학교라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겠다. 자녀들의 어린시절 어떻게든 건청인처럼 키우려고 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이제 없다.

“△△학교는 기숙사 비용만 냈어요. 근데 기숙사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게 차세대.. 차상위 계층까지만 아마 지원이 되고 제 소득이 그 일정 이상이 되면 기숙사 비용이 전혀 지원이 안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1인당 29만 원씩 한 달에 58만원을 기숙사 비용 그걸 할인이 안되는 거예요.”(1-14-1)

“서울○○학교에서 정학을 하게 된거 같고 △△학교로 다시 가겠다는 얘기도 안하고 ○○○학교는 두 번 다시 가

겠다는 얘기를 당연히 안해요. 서울○○학교 가서는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됐죠.”(1-13-1)

“소망이가 서울△△학교 갔을 때 음~ 엄마 난 이제 여기서 안움길꺼야. 그런 얘기를 지가 하더라고요. 서울△△ 말고 서울 ○○학교”(1-13-5)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자녀들을 등교시키는 문제가 무척이나 신경 쓰였는데, 큰 딸이 남동생을 데리고 적응하면서 한 걸 수월해졌다. 아이들이 ○○에 있는 학교에 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다. 큰 딸이 탁구부에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전학을 결정하게 되었고, 탁구부에서 힘든 훈련도 잘 참아냈다. 탁구와 관계없는 선생님의 간섭으로 탁구와 점차 멀어지게 되고, 마음이 떠나버렸다.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큰 딸의 안정을 위해 다시 본래 다니던 학교로 두 번째 전학을 시도했다. 그리고 반년쯤 지나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 탁구 성적이 좋아서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너무 아쉽다며 탁구를 계속 할 것을 권유받았다. 문제는 딸이 지난 번 학교에서 받은 상처와 실망감에 탁구가 싫다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운동을 꼭 그 학교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세 번째 전학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큰 딸이 합숙훈련을 소화하며 건청인 학교 탁구부에 소속되어 잘 훈련하고 있다.

“3월 말에 입학해서 가입학 상태로 1학년 1년을 다녀서 1학년을 다시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3학년까지 마치고 ○○에 청각장애인 학교, ○○○ 학교로 보냈어요. 탁구부에 들어가기 위해서요.”(2-3-8)

“(그러면, 딸이랑 아들이랑 학교를 옮긴 이유는 대부분 아이들..중심..?)

네, 딸을 위해서.. (딸은) 다른데로 옮기고 (아들은) 그대로 가고.. (아..아들은 그냥 따라간 것이고?) 네..

딸은 탁구에 집중할 목적으로 포기하기 아까워서..”(2-7-6)

2) 물 만난 고기: 자녀와 어머니의 행복찾기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량을 잘 펼칠 수 있는 직업, 특기, 상황이나 단체를 만났을 때, ‘물 만난 고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건청인 어머니의 경우 언어치료와 관련해서 4~5년 동안을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 좋다는 곳, 잘한다는 곳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가 보청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수화도 언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이들에게 수화를 배우도록 했다.

“결국은 수술을 안했고, 거기에서 연결된 그런 보청기 하시는 분을, ○○쪽에서 하시는 분을 만났다가 그때 아이들이 한.. 큰아이가 7.. 8살 정도 됐었고, 작은아이가 6살 정도 됐을 때 강남에서 보청기 하시는 분.. 아! ○○이비인후과를 또 연결이 되서 갔었구나. ○○이비인후과를 갔었다가 ○○이비인후과에서 연결된 보청기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아무리 언어치료 시켜도 이정도 청력을 가진 애들이면 언어, 구화로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수화도 하나의 언어니까 어머니가 생각을 좀 달리 한다면 수화를 가르켜서 아예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바꿔봐 라고 설득을 하시더라고요.”(1-5-4)

건청인 어머니는 그 때를 회상하면서 청각장애인 특유의 몸짓과 표정들이 스피치가 물을 빨아들이듯 습득하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서글프기도 하다는 말을 했다. 어머니와는 다른 세계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이다.

“수화를 시작하고 나서 3~6개월 딱 됐는데 제가 너무 애가 낫선 거예요. 정말 농인들하고 그 어떤 모양새가 흡사하게 딱 변해있는 거예요”(1-6-5)

“근데 반면 저는 그 선택을 너무 잘했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그걸 통해서 아이가 제가 몇 년 동안 그 언어 치료 시키냐고 막 그랬던 거와 그 6개월 이후에 아이의 밝아진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1-6-7)

“제 머리 속에서. 그래서 아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한 거지만 잘했다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수화를 함으로써 아이가 갑자기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자기 세계를 찾았더라는. 맞아요. 그런 모습이 딱 보였어요.”(1-6-8)

‘물 만난 고기’의 요소들은 또 있다. 건청인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마술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방과후 교실에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선생님께서부터 무대마술을 제안 받았고, 지금은 ○○국제마술대회 본선에도 진출하는 등 소질을 보이고 있다. 큰아들이 마술을 배우면서 행복해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공연할 때 무대 위에서 전혀 다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관객들을 끌어당기는 모습에, 또한 본인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변화를 보니 자녀들의 꿈을 키워줄 방법을 더욱 고민하게 됐다. 첫째 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서 둘째아들도 무언가 독특한 것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해서 ‘레고’를 시작하게 됐다. 건청인 어머니는 큰아들이 마술을 배우면서 좋은 것 또 한 가지는 마술을 배우는 학원 안에서 위계질서를 통해 남자 어른들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다.

건청인 어머니와 청각장애인 어머니가 동일하게 ‘물 만난 고기’처럼 변화된 것은 자녀들을 농아학교 기숙사에 보냈을 때이다. 자신들의 삶을 모두 빼앗겨 버린 어머니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양육에 지친 모습들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기숙사로 보내고 약간의 휴식과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이들 이제 서울△△학교 입학 시키고 수화 배우고 나서부터는 많이 마음이, 마음의 짐들이 덜어지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그때 서울△△학교에 보내면서 기숙사에 둘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어리니까 통학이 안되는 거예요.”(1-7-12)

“스트레스가 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잘 양육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전 몸이 힘들다보니 짜증만 나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여러 가지로...”(2-3-10)

더구나 건청인 어머니는 직장에서 승급시험을 앞두고 자녀들을 기숙사에 보냈는데, 어머니 자신도 ‘승진’이라는 ‘물 만난 고기’를 또 낚았다.

3) 외나무다리 건너기⁶⁾: 자녀의 행복이 어머니의 행복

건청어머니와 청각장애인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겪는 부담과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자녀들의 작은 일어섬과 성공하는 행복은 결국 어머니의 행복이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부모세대로서 자녀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수난이대의 ‘만수’와 너무 많이 닮아 있다. 자녀를 업고 외나무다리 같은 이 세상을 건너는 건청인 어머니와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결단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분(다른 농아 마술사)을 보면서도 저도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도 뭔가 소망이로서는 이 길이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계속 돌다리 두드려보며 가는 심정으로 가고 있어요.”(1-20-3)

6) 『수난이대(受難二代)』의 클라이맥스는 팔이 하나 없는 아버지 ‘만수’가 다리가 하나 없는 ‘진수’를 등에 업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장면이다. 외나무다리를 외(나무)다리 아들 ‘진수’가 건너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아슬아슬하다.

건청인 어머니의 경우 큰 아들의 미술 수업료가 많이 비싸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나, 다른 지역사회에서 돕는 손길이 연결되어 경제적인 지지가 심리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중략)... ... 특수교육센터 거점센터라고 하는데 뭐가 지원해주는 게 있냐 했더니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어요. 저랑 통화했던 선생님이(중략) 한 두달쯤에 진화가 왔는데 뭐가 결정이 됐다고 소망이 인적사항 하고 저랑 아이들 주민등본이랑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냈더니 한달에 10만원씩 소망이 지금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미술을 한다면 10만원씩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게 결정이 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1-14-11)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도 큰 딸이 탁구로 성장하고 있어서, 둘째 아들을 볼링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학습효과로 큰 아들, 큰 딸만이 아니라 둘째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와 꿈을 실현하는 홀로서기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랄뿐이다. 큰딸이 미술에 소질을 보여서 상금과 부상 등을 타오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랑스러워했다.

“학교 선생님이 아들이 예의가 바르대요.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씻고 밥 먹고 가요. 학교에 혼자 가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놀랐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의가 바르고 잘한다고요. 선생님 말씀 듣고 그렇구나.. 생각했죠. 선생님이 이미 아들을 보고 알고계시더라고요.”(2-17-2)

“네.. 그 외 또 다른 것 인천 ○○학교에서 뭐 있었나면..도시가스 그림 대회에 선생님이 나가보라고 하셔서 뭘 그럴까 고민하더니 중학교 1학년때가? 2학년때가? 아.. 중학교 1학년 때 참가해서 입상했어요. 보니까 잘 그렸더라고요. 1등한 적 있어요. 50만원, 잘했어요. 또 중학교 2학년 때 두 번째로.. 네.. 딸이 말했어요. 재밌다고, 좋다고. 칭찬해줬어요. “50만원 상금으로 뭐할거니?” 물었더니 기계..로봇 아세요? 청소기.. 선물로 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선물로 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요. 또.. 중1때는 1위했고 중2때는 2위했어요. 30만원 받았어요.”(2-9-1)

“(딸이 탁구 쳐가지고 상 받아온 적 많죠?) 예. 집에 있어요. 집에 뒀어요. 많아요. 많아요. 상자에.. 왜냐하면.. 메달을 밖에 걸어두면 먼지가 많이 쌓여서 상자에 넣어서 보관해놨어요. 애지중지해요.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봐요. 상장도 있고 메달도 있고..차곡차곡 정리해 뒀어요. 버리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2-9-3)

탁구로도 많은 상을 받은 큰 딸은 지금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청각장애인 어머니가 큰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건청인 학교의 탁구부로 들어가 탁구 선수훈련을 다시 시작했다.

V. 함의 및 결론

본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 진행되어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건청인 어머니와 청각장애인 어머니에 대해 같은 시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한 연구사례이다. 선행연구 된 대상자 대부분은 청각장애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인 자녀(CODA: Children Of Deaf Adults)였다. 청각장애 특성상 연구자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청각장애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다만 선택표집에 의한 연구 대상자가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 각 한 명씩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렵고, 연구대상자의 양육환경과 청각장애 자녀의 성별이 달라서 양육경험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의사소통방식의 차이 외에 가정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절대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가정에서는 가족간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건청인 어머니의 가정에서는 청각장애 발생 초기 수화를 언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음성언어를 가르치면서 갈등요소가 발생한 부분이다. 결국 자녀들이 농아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이중 언어교육(Bilingual approach)이 가능해지고 오히려 수화를 언어로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행복찾기에 성공하는 부분은 최근 무분별하게 인공와우 수술을 선택하려는 부모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의 양육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건청인 어머니보다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가 자녀의 청각장애를 수용하는 시간이 더 짧았다. 이 한선·김병하(2003)는 자녀의 장애를 확인한 시기가 양육기간 중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보았는데, 연구대상자도 유전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였기에 자녀가 청각장애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점철되었다. 유전에 대한 우려, 검사과정 그리고 청각장애 판정 등의 상황 속에서 두 어머니의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달했고, 심층면담을 통해서 “큰 멧돌짜”, “충격과 실망”, “답답함” 등으로 표현되었다. 선택표집으로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 각 한명이 연구대상이므로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청각장애를 이미 경험한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경우가 건청인 어머니의 경우보다 자녀의 청각장애를 수용하는데 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의 선택에 차이가 있었다.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건청어머니의 가정은 청각장애 자녀 출생 초기에는 청각장애를 병리학적인 접근을 시도해서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음성언어를 1차언어로 선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화를 습득하는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자녀들을 청각장애인 학교에 보내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수화를 습득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반면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가정에서는 의사소통과 관련한 갈등상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수화를 배우지 않아서 의사소통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보고와 일치했다(고은경 외, 2011).

셋째, 어머니 중심의 양육태도에서 청각장애 자녀중심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로 전환되었다.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경험들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다. 건청인 어머니에게나 청각장애인 어머니에게나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하다.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언어훈련, 청각장애 학교 입학, 기숙사, 탁구, 전학 등의 문제를 결정할 때 어머니가 최종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나 막상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녀의 시점에서는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결정이 된다거나 또는 정보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변동될 때는 청각장애 자녀들에게 적잖은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분석결과의 전체적인 흐름인 핵심범주를 살펴보면 ‘수난시대-어머니중심의 양육-갈등조정-자녀중심의 양육’으로 나타났다. 두 자녀가 청각장애라는 어려움을 극복해보려고 어머니 중심의 양육을 시도해보지만 결국은 청각장애 자녀중심 양육으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 자녀들을 민주적인 양육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탁구, 마술 등)하고, 그에 따른 전학을 수차례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청각장애 자녀들이 자아실현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어머니들의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임선아(2014)의 연구

에서 비민주적 양육방식은 학교적응력과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민주적 양육방식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같았다. 또한 청각장애는 다른 장애와 달리 언어가 달라서 의사소통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고, 부모로서 역할에 대해 주도적이거나 적극적인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Marschark, 1993; 오혜정, 2008 재인용)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넷째,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를 둔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 청각장애 학교 기숙사를 통해 해소되는 측면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건청인 어머니는 남편의 사업부도로 인한 빚 독촉, 직장생활 등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그런데 자녀들을 기숙형 농아학교에 입학시키고 나서 양육스트레스가 급감했으며,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쉼과 여유의 시간을, 건청인 어머니는 승진시험 준비를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다. 최성규(1999)는 청각장애 학생에게 있어 청각장애학교 기숙사와 학교선배를 소수민족의 영토와 어머니 역할로 보는 독특한 시각을 강조했는데, 청각장애 자녀가 청각장애 문화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전수받는 중요한 산실이라고 했다. 의사소통 방식이 같았던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가정에서도 같은 문화를 갖고 있었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건청인 어머니의 경우는 청각장애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6개월 정도 지난 아들의 모습을 “물 만난 고기”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다섯째, 어머니의 어린 시절 양육받은 경험이 자녀 양육할 때 영향이 있다. Bowlby(1982)는 어린 시절 양육 받은 경험에 따라 성인이 되어 자녀를 양육할 때 영향이 있다고 했다(이주리·이종인, 2008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를 둔 건청어머니는 어린 시절 적극적인 교육열을 가진 어머니 슬하에 자랐고,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친정어머니와 소통이 안돼서 어머니로부터 양육경험의 기억이 많지 않다. 자녀들과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따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가 기숙형 학교에 갔을 때 죄책감보다는 편안함을 느꼈다. 다만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건청인 어머니는 자녀들을 청각장애인 학교에 보내면서 구화가 아닌 수화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서 대화가 어려웠지만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적극적인 교육열로 매우 적극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화가 부족한 부분은 문자와 카톡으로 보충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과 통합된 형태의 교회로 출석하여 수화를 배우고 자녀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역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연구참여자인 청각장애인 어머니와 건청인 어머니는 서로 너무나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두 명의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한다는 공통조건을 기준으로 심층면담을 거쳐 근거이론의 지속적 비교방법으로 분석했다. 의미단위는 많이 다른 듯 보였지만 하위범주에서 범주를, 범주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범주를 찾아냈다. 애초에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건청인 어머니와 청각장애인 어머니 사이에 확연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철저한 괄호치기 끝에 나온 결과는 조금씩 다른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상당히 많은 공통분모가 존재했다. 그것은 청각장애 자녀들이 거주지역은 다르지만 청각장애 학교라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 수화라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속연구와 지원체계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한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연구대상을 다각화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각장애 판정을 처음 받았을 때, 어머니와 가족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안정을 취하고, 처음부터 청각장애를 병리학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자녀중심의 의사소통 방식(이중언어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담과 안내를 돕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청각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도록 긴

급상향 또는 필요시 청각장애 학교의 기숙사(돌봄)서비스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20세 이상 인구의 혼인상태별 행위자 평균시간"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서울특별시 교육청 <http://www.sen.go.kr> "2013 서울시 특수학교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2014 장애인 실태조사"
- 고은경·정계숙·이정희(2011). "고등학생 청각장애 자녀를 둔 두 어머니의 삶 이야기", 『생애학 회지』, 제1권 제2호, 49-64.
- 곽정란(2010). "인공와우를 둘러싼 부모의 선택에 대한 질적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1권 제2호, 251-279.
- 곽정란·서영란·이정옥(2011). 농아동을 둔 농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언어선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2권 1호), 329-349.
- 권순우·김영한(2004). "첫 번째와 두 번째 청각장애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비교", 『언어치료연구』, 제13권 제1호, 1-18.
- 권은경·최미혜·김수강(2008). "희귀 유전대사질환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죄책감", 『임상간호연구』 제 14권 3호(2008년 12월).
- 김기룡·김삼섭(2012).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장애수용태도 유형별 가정환경,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핵심역량 특성", 『정서·행동장애연구』 (제 28권 2호), 296-299.
- 김나현·이은주·곽수영·박미라(2013). "어린 아동을 둔 취업모의 양육부담감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9권 제3호), 188-200.
- 김병하·강창욱(1992).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경험: 질적 분석과 해석", 『특수교육연구』 제19권, 21-35.
- 김원옥·강현숙·조결자·송영아·지은선(2008). "혈우아동과 일반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죄책감, 양육태도 및 부모역할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4권 제4호, 270-277.
- 노라 엘렌 그로스/박승희 옮김(2003). 『마서즈 비니어드 섬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한길사.
- 데보라 K. 패짓/유태균 역(2001),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 나남출판.
- 문영경(2012). "사회적 지원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012년 6월 제 30권 3호(통권 117호) 165-177.
- 박주영·조복희(2000). "주말부모 어머니의 자녀양육 실태, 격리불안과 죄책감", 『대한가정학회지』: 제 38권 11호, 86-87.
- 박지명·이상균(2013). "다문화가족의 양육스트레스와 성인역할모델이 아동의 긍정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문화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제 25호, 398-415.
- 염동문·허명자·이한우(2004). "청각장애인 부모의 건청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5권 2호), 357-380.
- 오인혜·정은희(2011). "청각장애인 가족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경험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2011, vol. 13, no.3, 409-435(27).
- 오혜정(2008). "부모지원-가정중재가 청각장애 유아 어머니의 의사소통 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008. 3월/ 제 9권 1호, 347-366.
- 요나이야마·기무라·이찌다·도리고에·다나다/이와이·김만영·김상화·강재희 편역(2002), 『농문화의 이해』, 농아사회 정보원.

- 이규식·국미경·김중현·김수진·유은정·권요한·강수균·석동일·박미혜·김시영·권순황·정은희·이필상
공저(2004). 『청각장애아 교육』, 서울:학지사.
- 이영환(2012).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양육 참여시간 비교”, 『아동과 권리』 (제16권 제3호),
471-495.
- 이주리·이종인(2008). “어머니의 수용-거부와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경험: 양육경험의 중재효과
탐색”, 『놀이치료연구』, 제12권 제 2호, 17-27.
- 이한선·김병하(2003). “청각장애 자녀의 인공와우착용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사례연
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4권 4호, 205~220.
- 임선아(2014). “(구조관계모형 검증을 통한) 부모의 민주적, 비민주적 양육태도가 초등학교 아
동의 자기조절능력과 학교적응력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분석”, 『초등교육연구』 (제27권
제2호), 73~93.
- 장선아·심희정·고도홍(2013). “시각 및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부모교육 방안연구”,
『언어치료연구』 (제22권 제4호), 303-324.
- 정갑순(2006). 『부모교육론』, 창지사, 148-159.
- 정주영(2013). “남편의 양육참여가 양육스트레스와 부부갈등을 매개로 취업모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분석”, 『육아정책연구』, 제7권 1호, 2013년 6월, 106-126.
- 정태연·노현정(2005).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죄책감과 양육행동의 차이”, 한국심리학
회지: 『여성』 10(2), 211-231.
- 최민숙(2002). 『장애아동 교육을 위한 가족참여와 지원』, 서울: 학지사.
- 최영희·조문교(2012). “청각장애 아동의 우울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수화수준의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3권 제1호). 41-50.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2nd ed.). New York: Basic Book.
- Cole, E. & Flexer, C. (2010). *Children With Hearing Loss: Developing Listening and Talking, Birth to Six* (2nd ed.). San Diego, LA: Plural Pub Inc.
- Fine, M. J. (1980).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Inc.
- Griffit. P. L.(1985). *Mode-switching and mode-finding of a hearing child of deaf parents*. Sign Language Studies, 48, 195-222.
- Grossman, F. K., Pollack, W. S., & Golding, E.(1988). “*Fathers and children: Predict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fathe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1), 82-91.
- Marschark. M. (1993).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deaf childre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eadow-Orlans, K. P. (1990). The impact of childhood hearing loss on the family Cited in Moores, D. F. and Meadow-Orlans, K. P.(Ed),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Aspects of Deafness*. Washington, D. C.; Gallaudet University Press, 321~338.
- Moores. D. F. (1978). *Educating the deaf* Psychology, principles and practices. Boston, MA: Houghton Mifflin, 5, 95-96.
- Moores, D. F., & Sweet, C. (1990). Factors predictive of school achievement. In Moores, D. F., & Meadow-Orlans, K. P.(Eds),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aspects of deafness*. Washington: Gallaudet University Press, 154-155.
- Prinz. P. M, & Prinz. E. A.(1979). *Simultaneous acquisition of ASL and spoken English*, Sign Language Studies, 25, 283-296.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